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인식 비교*

신 창 숙**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안 성 우***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하여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 창원, 양산,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이며, 언어재활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부모·교사·언어재활사 86(258명)그룹의 설문조사로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인식하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기대수준이 현재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의 인식 차이가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의 발달을 이해하고 세 집단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장애유아, 언어능력,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

*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 1저자

*** 교신저자 special001@naver.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족, 친구,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 받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언어능력을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 정보 등을 교환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배우게 된다(한나영, 2012).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언어는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으로 대부분의 유아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언어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습득된 언어능력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발달하며 올바른 언어습관을 형성하게 된다(강성화, 김경희, 2011). 이처럼 유아기에 습득된 언어능력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언어능력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수용언어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표현언어로 나뉜다(김영태, 2000; 이차숙, 2004). 언어능력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는 독립적으로 각각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언어가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여 함께 표현언어가 발달하게 되며, 발달된 언어능력을 통해 언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된다.

언어능력의 발달에 있어 유아기는 결정적 시기로 언어능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적 경험의 자극이 필요하다(Erica, 2007). 유아의 언어능력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하지만, 언어능력이 자동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언어능력의 발달은 유아기 이후에 같은 노력으로 보상되거나 대처될 수 없으므로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최연옥, 2006).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능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 부모는 유아가 경험하는 언어적 자극의 양이 풍부하고 유아의 언어에 반응하는 정도가 적절할수록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은, 오숙현, 2006). 또한 우리사회의 가족구성 크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보육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유아의 언어 교육환경이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교사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적 환경 및 교사의 상호작용들은 언어능력 발달에 중요한 자극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와 유아가 언어능력을 이용한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경옥, 2005). 이는 유아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상호작용과 자극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의 발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 현장의 실태연구에 따르면 언어능력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금희, 김화수 2010; 박미혜, 2012). 이와 같이 언어능력에 있어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언어능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유아에게 적합한 언어중재와 언어능력의 발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재활사가 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발달에 관한 정보와 언어능력의 지연,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언어에 문제를 가진 대상들이 원활하게 언어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제공하게 된다(최순이, 권미진 2013).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부모·교사·언어재활사는 장애유아와 함께하는 시간과 장면은 다르지만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 있어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언어능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현재수준과 앞으로 발달하게 될 기대수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현재수준과 앞으로 성취하게 될 기대수준에 대한 기대는 언어능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시기와 그 능력에 대한 기치를 부여하고 유아의 발달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면,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현재수준과 앞으로 성취하게 될 기대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대하여 연구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어능력 발달에 중요한 부모·교사·언어재활사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교사·언어재활사를 통해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중재를 마련하기 위해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을 김영태 등(2004)이 개발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 PRES」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설문조사 당시 유아의 현재 언어능력 수준과 설문조사 이후 장애유아가 성취할 수 있는 기대 언어능력에 대하여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의 발달을 이해하고 기대수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교수계획에서 수준, 목표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장애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의 연계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부모·교사·언어재활사는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창원, 양산,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이며 언어재활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부모·교사·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대상을 소개 받아 연구대상을 늘려가는 방식인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300부(100그룹)를 배부하여 272부(90.7%)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14부를 제외하고, 총 258부(86그룹)를 분석하였으며, 장애유아 및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유아 및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의 기초배경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60(69.8)	부모	남	9(10.5)	
	여	26(30.2)		여	77(89.5)	
연령	만3세	57(66.3)	성별	교사	남	1(1.2)
	만4세	24(28.0)		여	85(98.8)	
	만5세	5(5.9)		언어재활사	남	1(1.2)
장애유형	발달지체	25(29.1)	여	85(98.8)		
	자폐스펙트럼장애	16(18.6)	부모	20세~30세	4(4.7)	
	지적장애	16(18.6)		30세~40세	60(69.8)	
	단순언어장애	16(18.6)		40세~50세	16(18.6)	
	지체장애	10(11.6)		50세 이상	6(7.0)	
	기타장애(중복장애등)	3(3.5)		연령	교사	20세~30세
유아 교육기관	장애전담어린이집	70(81.4)			30세~40세	25(29.1)
	일반어린이집	8(9.3)	40세~50세		3(3.5)	
	통합어린이집	6(7.0)	50세 이상	1(1.2)		
	특수학교부설유치원	1(1.2)	언어 재활사	20세~30세	68(79.1)	
일반유치원	1(1.2)	30세~40세		14(16.3)		
언어재활 받은기간	6개월 이하	4(4.7)		40세~50세	4(4.7)	
	6개월 ~ 1년 이하	9(10.5)		전체		
	1년 ~ 1년 6개월 이하	14(16.3)				
	1년 6개월 ~ 2년 이하	15(17.4)				
2년 ~ 2년 6개월 이하	10(11.6)					
	2년 6개월 이상	34(39.5)				
전체		86(100)			258(100)	

이상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유아의 성별은 남아(69.8%), 연령은 3세(66.3%), 장애유형은 발달지체(29.1%), 재원중인 유아교육기관은 장애전문어린이집(81.4%), 언어재활을 받은 기간은 2년 6개월 이상(39.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집단은 성별은 여자(89.5%)와 연령은 30~40세(69.8%), 교사집단은 여자(98.8%), 연령은 20~30세(66.3%), 언어재활사집단은 여자(98.8%), 연령은 20~30세(7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연구절차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이며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현재수준과 6개월 후의 성취할 수 있는 기대수준을 조사하여 세 집단 간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김영태 등

(2004)이 개발한 표준화 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척도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Scale; PRES)」를 기초로 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평가 문항들은 하위 영역으로 인지능력과 관련된 의미론적 언어능력, 언어학적인 지식과 관련된 구문론적 언어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화용적 언어능력의 3개 하위척도로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RES의 수용 언어영역 및 표현 언어영역 모두 cronbach's α 는 .95로 문항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가 매우 높은 검사도구이다. PRES는 유아의 수행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검사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3세, 4세, 5세 유아의 언어 발달에 대하여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검사도구인 「취학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Scale; PRES)」를 설문지화 하여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설문문항을 읽고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1차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특수교육 전공 교수 1명, 특수교육 전공 박사 2명이 검토하여, 부모 5명, 유아교사 5명, 언어재활사 5명의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검토 받아 설문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방법은 언어능력에 대한 현재수준은 ‘전혀수행하지않는다(1점)’, ‘가끔수행한다(2점)’와 ‘항상수행한다(3점)’로, 언어능력에 대한 기대수준은 ‘전혀수행하지 않을 것이다(1점)’, ‘가끔 수행 할 것이다(2점)’와 ‘항상 수행 할 것이다(3점)’에 1점에서 3점까지 응답하여 표시하는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용·표현언어의 응답범위로 45점에서 13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정·보완한 설문지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영역 Cronbach $\alpha = .90 \sim .97$ 로 전체 .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영역별의 하위영역별 설문내용과 문항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수용 언어 수정 전													
월령	문항내용	평가 기준	전체	하위문항						언어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인지/의미론	음운/구문론	화용론	
49-54개월	31. 청각적 기억력	3/3 1번 실시2/2											
31. 청각적 기억력(3/3) _____ “선생님이 책상을 몇 번 두드리는지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① 4번 _____ ② 3번 _____ ③ 5번 _____ ↓ <수정 후>													
1. 지금은			문항번호	← 문항내용 →				문항번호	2. 앞으로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가끔 수행한다	항상 수행한다							전혀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수행할 것이다	항상 수행할 것이다		
1점	2점	3점							1점	2점	3점		
			31	청각적 자극을 기억하여 모방(청각적 기억력) 한다. (예: 책상을 4번 두드리면 유아도 책상을 4번 두드린다.)									
표현 언어 수정 전													
월령	문항내용	평가 기준	전체	하위문항						언어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인지/의미론	음운/구문론	화용론	
49-54개월	31./ㅅ, ㅈ/계열 소리 모방	4/57-10개2/2											
31. /ㅅ, ㅈ/계열 소리모방(4/5) _____ “선생님이 말하면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① 자동차 _____ ② 짹짹 _____ ③ 참외 _____ ④ 수건 _____ ⑤ 싸움 ---- (두 번까지만 반복 시범) ↓ <수정 후>													
2. 지금은			문항번호	← 문항내용 →				문항번호	2. 앞으로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가끔 수행한다	항상 수행한다							전혀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수행할 것이다	항상 수행할 것이다		
1점	2점	3점							1점	2점	3점		
			31	‘자동차/짹짹/참외/수건/싸움’과 같은 ‘ㅅ/ㅈ’계열의 단어가 들어가는 말을 정확하게 모방하여 말한다.									

<그림 1> 수용언어·표현언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설문 예

<표 2> 언어영역에 따른 하위영역별 문항수와 신뢰도 (N=258)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 α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인지적 개념을 내포하는 수용 및 표현 어휘력 의미관계 또는 지시의 이해 및 표현 능력	수용 언어	현재 25	.97
			기대 25	.97
음운론 및 구문론	음운 능력 간단한 구문 이해력 및 표현력 복잡한 구문 이해력 및 표현력	수용 언어	현재 15	.90
			기대 15	.95
화용론	의사소통 상황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며 표현하는 화용적인 이해력 및 표현력	표현 언어	현재 22	.95
			기대 22	.97
전체		수용 언어	현재 6	.96
			기대 6	.96
		표현 언어	현재 8	.92
			기대 8	.95
전체		180		.95

2) 자료 처리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처리 하였다. 장애유아의 배경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 발달능력 특성과 부모, 유아교사, 언어재활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장애유아 언어능력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유아 언어능력에 대하여 집단 및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인식하는 장애유아의 수용언어전체에 대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기대수준이 현재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t=-14.59, 교사:t=-12.05, 언어재활사:t=10.52, p<.001). 또한 하위영역인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도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장애유아 수용언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차이 (N=258)

집단	하위유형		평균(M)	표준편차(SD)	t
부모	인지개념 및 의미론	현재	49.40	13.05	-15.03***
		기대	59.44	12.92	
	음운 및 구문론	현재	25.72	8.40	-12.47***
		기대	32.67	9.36	
	화용론	현재	8.13	3.06	-8.30***
		기대	10.56	4.32	
수용 언어 전체		현재	80.70	23.34	-14.59***
		기대	99.86	25.62	
교사	인지개념 및 의미론	현재	45.06	13.26	-12.21***
		기대	54.53	15.09	
	음운 및 구문론	현재	23.59	7.07	-11.27***
		기대	29.90	9.98	
	화용론	현재	7.49	2.58	-7.96***
		기대	9.60	4.02	
수용언어 전체		현재	74.03	21.74	-12.05***
		기대	91.22	28.10	
언어재활사	인지개념 및 의미론	현재	45.45	13.54	-11.07***
		기대	52.34	14.89	
	음운 및 구문론	현재	24.02	7.26	-9.04***
		기대	27.51	9.58	
	화용론	현재	7.10	2.21	-5.93***
		기대	8.49	3.67	
수용언어 전체		현재	72.78	21.92	-10.52***
		기대	85.43	27.24	

*** $p < .001$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인식하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의 표현언어 전체에 대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기대수준이 현재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t = -9.53$, 교사: $t = -7.87$, 언어재활사: $t = -7.29$, $p < .001$) 또한 하위영역인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도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장애유아 표현언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차이 (N=258)

집단	하위유형		평균(M)	표준편차(SD)	t
부모	인지개념 및 의미론	현재	24.85	8.77	-9.12***
		기대	29.92	10.73	
	음운 및 구문론	현재	34.97	12.22	-9.62***
		기대	42.12	14.34	
	화용론	현재	12.49	4.68	-8.09***
		기대	15.05	5.79	
	표현 언어 전체	현재	70.35	24.74	-9.53***
		기대	84.87	29.92	
교사	인지개념 및 의미론	현재	22.40	8.48	-7.86***
		기대	26.55	10.20	
	음운 및 구문론	현재	32.86	11.31	-8.02***
		기대	37.45	13.51	
	화용론	현재	11.70	4.56	-6.11***
		기대	13.26	5.34	
	표현 언어 전체	현재	66.20	23.46	-7.87***
		기대	75.23	28.17	
언어재활사	인지개념 및 의미론	현재	22.80	7.93	-6.25***
		기대	25.47	9.95	
	음운 및 구문론	현재	32.58	10.78	-7.80***
		기대	36.69	13.10	
	화용론	현재	11.17	4.01	-6.50***
		기대	12.65	4.98	
	표현 언어 전체	현재	64.80	21.65	-7.29***
		기대	72.81	26.98	

*** $p < .001$

2.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집단 및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

1) 장애유아 언어능력에 대한 집단 간 인식 비교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의 수용·표현언어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하여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의 인식 차이 사후검증 결과 수용언어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용언어 하위영역 중 화용론에서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언어 기대수준 전체에서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도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언어 현재수준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대수준 전체에서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유형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장애유아의 수용언어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N=258)

구분	하위유형	집단	평균(M)	표준편차(SD)	F(Scheffé)
현재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부모 ^a	49.40	13.05	2.43
		교사 ^b	45.60	13.26	
		언어재활사 ^c	45.45	13.54	
	음운 및 구문론	부모 ^a	25.72	8.40	3.01
		교사 ^b	23.59	7.07	
		언어재활사 ^c	23.02	7.26	
	화용론	부모 ^a	8.13	3.06	3.30* (a>c)
		교사 ^b	7.49	2.58	
		언어재활사 ^c	7.10	2.21	
	수용언어 전체	부모 ^a	80.70	23.34	3.12
		교사 ^b	74.03	21.74	
		언어재활사 ^c	72.78	21.92	
기대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부모 ^a	59.44	12.92	5.54* (a>c)
		교사 ^b	54.53	15.09	
		언어재활사 ^c	52.34	14.89	
	음운 및 구문론	부모 ^a	32.67	9.36	6.18* (a>c)
		교사 ^b	29.90	9.98	
		언어재활사 ^c	27.51	9.58	
	화용론	부모 ^a	10.56	4.32	5.73* (a>c)
		교사 ^b	9.60	4.02	
		언어재활사 ^c	8.49	3.67	
	수용언어 전체	부모 ^a	99.86	25.62	6.22* (a>c)
		교사 ^b	91.22	28.10	
		언어재활사 ^c	85.43	27.24	

* $p < .05$

<표 6> 장애유아의 표현언어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N=258)

구분	하위유형	집단	평균(M)	표준편차(SD)	F(Scheffé)
현재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부모 ^a	24.85	8.77	1.92
		교사 ^b	23.40	8.48	
		언어재활사 ^c	22.80	7.93	
	음운 및 구문론	부모 ^a	34.97	12.22	1.32
		교사 ^b	32.86	11.31	
		언어재활사 ^c	32.58	10.78	
	화용론	부모 ^a	12.49	4.68	1.35
		교사 ^b	11.70	4.56	
		언어재활사 ^c	11.17	4.01	
	표현언어 전체	부모 ^a	70.35	24.74	1.11
		교사 ^b	66.20	23.46	
		언어재활사 ^c	64.80	21.65	
기대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부모 ^a	29.92	10.73	4.38*** (a>c)
		교사 ^b	26.55	10.20	
		언어재활사 ^c	25.47	9.95	
	음운 및 구문론	부모 ^a	42.12	14.34	3.98*** (a>c)
		교사 ^b	37.45	13.51	
		언어재활사 ^c	36.69	13.10	
	화용론	부모 ^a	15.05	5.79	4.61*** (a>c)
		교사 ^b	13.26	5.34	
		언어재활사 ^c	12.65	4.98	
	표현언어 전체	부모 ^a	84.87	29.92	4.34*** (a>c)
		교사 ^b	75.23	28.17	
		언어재활사 ^c	72.81	26.98	

*** $p < .001$

2) 장애유아 언어능력에 대한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 비교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수용·표현언어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간의 차이에서는 기타장애 9부(3그룹)을 제외하고 249부(83그룹)를 살펴보았다.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수용언어 현재수준 전체와 기대수준 전체에서 단순언어장애가 발달장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단순언어장애가 자폐스펙트럼장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언어 현재수준 전체와 기대수준 전체에서 단순언어장애가 발달장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단순언어장애가 자폐스펙트럼장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장애유아의 수용언어에 대한 장애유형별 인식 차이 (N=258)

구분	하위유형	집단	평균(M)	표준편차(SD)	F(Scheffé)
현재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발달장애 ^a	45.09	14.54	11.73*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39.17	10.70	
		지적장애 ^c	49.06	11.36	
		지체장애 ^d	49.43	12.93	
		단순언어장애 ^e	55.60	10.50	
	음운 및 구문론	발달장애 ^a	23.17	7.67	9.92*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20.23	5.07	
		지적장애 ^c	25.23	7.67	
		지체장애 ^d	24.87	7.66	
		단순언어장애 ^e	29.10	7.38	
	화용론	발달장애 ^a	7.41	2.49	5.30* (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6.48	1.22	
		지적장애 ^c	7.58	2.70	
		지체장애 ^d	7.67	3.00	
		단순언어장애 ^e	8.88	3.34	
	수용언어 전체	발달장애 ^a	70.03	23.52	11.28*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63.29	15.92		
지적장애 ^c		79.46	20.80		
지체장애 ^d		79.33	22.09		
단순언어장애 ^e		90.77	20.25		
기대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발달장애 ^a	52.75	16.03	11.56*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47.65	14.27	
		지적장애 ^c	59.77	11.21	
		지체장애 ^d	57.23	14.09	
		단순언어장애 ^e	64.54	9.17	
	음운 및 구문론	발달장애 ^a	28.72	10.42	9.50*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24.96	8.98	
		지적장애 ^c	32.50	8.52	
		지체장애 ^d	31.27	9.27	
		단순언어장애 ^e	35.71	7.93	
	화용론	발달장애 ^a	9.24	3.96	6.22*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7.77	2.75	
		지적장애 ^c	10.33	4.07	
		지체장애 ^d	9.53	4.34	
		단순언어장애 ^e	11.60	4.54	
	수용언어 전체	발달장애 ^a	87.89	29.51	10.60* (e>a) c,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77.60	25.15		
지적장애 ^c		99.73	23.14		
지체장애 ^d		95.23	26.28		
단순언어장애 ^e		108.90	20.91		

*p < .05

<표 8> 장애유아의 표현언어에 대한 장애유형별 인식 차이 (N=258)

구분	하위유형	집단	평균(M)	표준편차(SD)	F(Scheffé)
현재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발달장애 ^a	21.73	7.99	12.08*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19.38	5.45	
		지적장애 ^c	24.60	8.59	
		지체장애 ^d	27.73	8.95	
	음운 및 구문론	단순언어장애 ^e	28.77	7.90	13.58* (e>a c,d,e>b)
		발달장애 ^a	30.72	11.32	
		자폐스펙트럼장애 ^b	27.52	6.77	
		지적장애 ^c	34.25	10.84	
	화용론	지체장애 ^d	39.87	12.65	13.24* (e>a c,d,e>b)
		단순언어장애 ^e	40.67	10.39	
		발달장애 ^a	10.81	4.33	
		자폐스펙트럼장애 ^b	9.31	2.52	
	표현언어 전체	지적장애 ^c	12.27	4.36	13.04* (e>a c,d,e>b)
		지체장애 ^d	13.83	4.76	
		단순언어장애 ^e	14.63	4.23	
		발달장애 ^a	61.64	22.78	
기대 수준	인지개념 및 의미론	자폐스펙트럼장애 ^b	54.85	14.00	11.63* (e>a c,d,e>b)
		지적장애 ^c	69.27	22.66	
		지체장애 ^d	79.13	25.34	
		단순언어장애 ^e	81.67	21.76	
	음운 및 구문론	발달장애 ^a	25.15	10.37	13.25* (e>a c,d,e>b)
		자폐스펙트럼장애 ^b	21.90	7.29	
		지적장애 ^c	28.77	10.25	
		지체장애 ^d	31.13	10.52	
	화용론	단순언어장애 ^e	33.90	9.50	13.81* (e>a c,d,e>b)
		발달장애 ^a	35.53	14.04	
		자폐스펙트럼장애 ^b	31.29	9.85	
		지적장애 ^c	40.79	13.59	
	표현언어 전체	지체장애 ^d	44.77	13.30	12.75* (e>a c,d,e>b)
		단순언어장애 ^e	47.67	11.49	
		발달장애 ^a	12.40	5.47	
		자폐스펙트럼장애 ^b	10.58	3.91	
표현언어 전체	지적장애 ^c	14.63	5.29	12.75* (e>a c,d,e>b)	
	지체장애 ^d	15.77	5.14		
	단순언어장애 ^e	17.27	4.68		
	발달장애 ^a	71.25	28.96		
표현언어 전체	자폐스펙트럼장애 ^b	62.19	20.19	12.75* (e>a c,d,e>b)	
	지적장애 ^c	81.96	28.13		
	지체장애 ^d	89.17	28.20		
	단순언어장애 ^e	96.17	24.94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인식하는 장애유아 수용언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을 비교한 결과,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긍정적 인식은 단순히 인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유아의 전반적 발달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운영(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유아발달의 기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유아의 발달에 대하여 기대가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또한 부모의 기대감은 자녀에게 있어 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언어능력을 촉진시켰다(김선옥, 2005; 김두환, 2005; 심수경, 2005; 최윤희, 이소현, 2006). 이와 같이 부모의 기대는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유아에게 전달되어 유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유아에 대한 기대는 유아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양육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장애유아의 전반적 발달과 함께 언어능력이 향상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가 인식하는 장애유아 수용언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을 비교한 결과,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교사가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가 없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기대감은 유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명숙과 고은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유아에 대하여 학습적 기대와 일반적 기대가 높을수록 유아의 기초학습에 대한 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기대는 현재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심의 대상이며 교사가 학생의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짐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반영되어 기대에 따른 학습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황기우, 1996). 그리고 최시영(2002)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기대는 교사의 행동과 아동의 학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기대가 높은 아동일수록 더욱 자주 상호작용 하여 학업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유아발달에 대한 기대수준은 유아교육의 실재를 계획·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순이 외,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는 비록 일반유아에 대한 연구결과이지만, 교사의 기대수준은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계획·운영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며, 그 결과 유아의 학업성취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사의 기대가 장애유아의 교육적 효과에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사가 장애유아의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장애유아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발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는 장애유아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아의 전반적 발달과 언어능력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 구성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을 촉진하고 자극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장애유아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재활사가 인식하는 장애유아 수용 언어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을 비교한 결과,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언어재활사가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현재수준보다 기대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부모, 교사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장애유아 또는 일반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현재수준이나 기대수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유아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오영미, 1997; 유윤영, 2011), 교사의 기대가 높은 것은 유아의 학습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황기우, 1996; 최시영, 2002). 선행연구는 비록 부모와 교사에 대한 연구결과이지만, 유아에 대한 기대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계획·운영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며, 그 결과 유아에게 있어 학업성취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언어재활사의 기대는 부모, 교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유아의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순이와 최성규(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유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발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정에서의 지도방법과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교육계획과 필요성 인식하고 조기중재에 대하여 의논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교사·언어재활사 모두 유아의 전반적 발달과 언어발달에 있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결정함이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유아의 수용언어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을 집단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화용론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 교사와 언어재활사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와 언어재활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화용론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중 화용론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장애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교육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으로, 장애유아의 성장과 언어능력 발달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곳이다. 또한 장애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들은 세 장소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생활하는 곳으로 다양한 맥락 속에 언어, 표정, 제스처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그 빈도 또한 높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유아들은 치료실이라는 낯선 곳에서 언어재활사와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의사소통에 대한 의도가 없는 유아의 경우 관찰가능한 언어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Thomblin et al., 1989; 한지영, 2002에서 재인용). 구조화된 상황과 제한된 시간동안 설정한 교육목표에 대하여 집중적인 언어 지도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서 화용적인 이해력을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재활사가 부모보다 화용론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유아의 표현 언어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을 집단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igafos와 Pennel(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발달지체를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를 부모와 전문가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표현 언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 연구에서 유아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전문가와 함께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영, 200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장애유아의 표현언어에 대한 현재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모와 교사, 언어재활사간에 장애유아의 표현언어의 현재수준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있어 부모·교사·언어재활사에 있어 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는 장애유아의 표현 언어가 발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한다면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장애유아의 수용 언어 기대수준에 있어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와 언어재활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장애유아의 수용 언어에 대하여 더 높은 기대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도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더 높게 인식하였다. 장은경 외(1998)의 연구에서 일반유아의 발달에 대하여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순이, 권미지(2013)의 연구에서 연령은 다르지만 장애아동의 언어수준을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에 비교한 결과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아동의 언어수준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보니 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 언어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맥락적 이해관계 등이 유아의 언어 이해에 영향을 미쳐 보이는 반응의 차이로 인해 장애유아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유아의 표현언어 기대수준에 대해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영역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현언어 기대수준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 교사와 언어재활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와 언어재활사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장애유아의 표현 언어 기대수준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최순이, 권미지(2013)의 연구에서 장애아동의 언어수준을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에 비교한 결과 부모가 언어재활사보다 아동의 언어수준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표현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의도 등을 말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언어재활을 받고 있는 치료실의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로 본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장애유아의 수용언어 현재수준에 대한 장애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장애유아의 표현 언어 현재수준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이 되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단순언어장애가 발달장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보다 지적장애, 지체장애, 단순언어장애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영역인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론 및 구문론, 화용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유아의 수용언어 기대수준에 대한 장애유형에 따라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단순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언어능력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서는 심각한 발달상의 문제가 없으나 언어능력의 발달에 있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단순언어장애유아의 경우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 인지개념 및 의미론에서 첫 낱말 습득이 일반유아들보다 늦으며 제한적인 동사사용, 음운론 및 구문론에서는 구문구조에서 실수와 동사와 관련된 형태소의 습득에 어려움을 가지며 음운인식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김영태, 2014). 또한 화용론에서는 의사사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있어 수용에 결함이 있으며 단어선택이나 주제유지에 어려움을 보인다(Bishop & Nobury, 2002; 서유경, 안성우, 2015에서 재인용). 지적장애 유아의 언어발달에서도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유아를 제외하고 일반유아와 매우 유사한 언어발달을 보이지만 인지개념 및 의미론에서는 낱말의 뜻을 구체적 의

미로만 이해하고 맥락에 의존하고, 음운론 및 구문론에서는 수식이나 관계절이 적은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화용론에서 있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의 사용과 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최성규, 1999).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경우 유아의 연령과 언어능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김은경, 2002). 김지원 등(2015)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인지개념 및 의미론 사용에 있어 특정 낱말만을 사용하고 관계어 습득에 있어 어려우며, 음운론 및 구문론은 짧고 간단한 문장구조를 사용하거나 제한된 문장형태를 사용하고 화용론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본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언어의 형태와 상황 맥락을 맞추는 것에 결함이 있다(김영태, 2014)

본 연구에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재수준에서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기대수준에서는 세 집단에서 부모와 언어재활사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 비교를 하는 데 있어 편견이나 기술의 부족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유아가 속해 있는 여러 환경에서 보여지는 언어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세 집단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교사·언어재활사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유아의 특별한 행동에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 있으며, 풍부한 언어능력 발달을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극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발달에 대한 적절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대한 기대는 그 능력에 대한 가치의 부여, 선호도를 반영하고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사·언어재활사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언어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교사·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부모·교사·언어재활사의 연계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사·언어재활사 간의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유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 집단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장애유아의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를 대상을 선정

하여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비교해 보길 바란다.

둘째, 장애유아의 언어능력을 부모, 교사, 언어재활사 간의 인식을 비교해봄으로써 집단의 연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집단 간의 협력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성화, 김경희 (2010). **영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서울: 동문사.
- 고은, 오숙현 (2006).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유무에 따른 영아기 언어발달 비교 분석. **특수 아동교육연구**, 8(1), 19-40.
- 김경옥 (2005).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30개월 영아의 언어표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환 (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와 학업성취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15(1), 43-64.
- 김선옥 (2005). 유아의 읽기에 대한 음운처리과정, 글자지식 및 언어 능력의 영향력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0).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의 타당도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3(2), 1-19.
- 김영태 (2014). 아동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4).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경 (2002).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2(2), 83-119.
- 김지원, 최지은, 이윤경 (2015). 초기언어발달단계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동 특성. **유아특수교육연구**, 15(3), 51-67.
- 박미혜 (2012). 유치원 교사의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417-433.
- 박순이, 심성경, 박주희 (2005). 부모와 교사의 유아발달 기대수준. **교육과학연구**, 36(2), 211-229.
- 서유경, 안성우 (2015). 의사소통장애 선별도구로서 CCC-2의 유용성. **언어치료연구**, 24(4), 319-332.
- 심수경 (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미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영 (2011). 어머니와 교사의 유아기 발달에 대한 기대와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8(1), 133-158.
- 이차숙 (2005). **유아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서울: 학지사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 36(4), 137-146.
- 정명숙, 고은미 (2007). 교사와 부모의 유아에 대한 학습적·일반적 기대와 유아의 기초학습 수행과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11(3), 497-514.
- 조금희, 김화수 (2010). 언어 및 의사소통장애와 언어치료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1), 307-335.
- 최성규 (1999). 장애아동의 어휘지도를 위한 일반아동의 기초어휘 난이도 분석. **특수교육연구**, 6, 53-72.
- 최순이, 권미지 (2013). 협력적 구성원 간 연계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22(3), 255-269.
- 최시영 (2002). 학생의 교사기대 수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 배경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옥 (2006). 초기 표현언어 발달에 관한 부모 보고 평가의 타당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 이소현 (2006). 반응적 의사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훈련이 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연구**, 11(2), 122-144.
- 한나영 (2012).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만 4, 5세 유아의 수용·표현언어발달, 어휘력, 단어읽기 비교: G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영 (2002). 초기 표현언어 발달에 관한 부모보고 평가의 타당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기우 (1996). 교사의 기대이론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교육학연구**, 2(1), 181-201.
- 황순이, 최성규 (2006). 조기중재에 대한 장애유아 부모의 현실적 기대와 잠정적 기대에 대한 상관성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8, 163-183.
- Hoff, E. (2007). *Language Development 3th*, Wadsworth Publishing, 언어발달 제3판 (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4 출판)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f Parents, Teacher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on Language Ability of Disabled Children

Shin, Chang-Suk

Pusan National University

Ahn, Seoung-Woo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parents, teachers, and language rehabilitation practitioners about the present level and expectation level of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the evaluation of the parents, teachers, and language rehabilitation of 86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in financial suppor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Busan, Changwon, Yangsan, and Daegu, Respectively. First, expectation level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ognized by parents, teachers, and language rehabilitators was higher than current level.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arents, teachers, and language rehabilitation practitioners about the acceptance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 present level. Third,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the current level of the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ing ways for the three groups to link them.

Key Words : Language Ability, Disabled Children, Parents, Teachers,
Speech-Language Pathologists

논문 접수: 2018. 05. 16 심사 시작: 2018. 05. 16 게재 확정: 2018. 06. 17